


<div>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div>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4월 15일 (금)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공원조성과	담당자	• 공원기획팀장 최윤오 ☎458-7031 • 담당자 노승운 ☎458-703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의 시대, 인천시 공원녹지 대안 논의

- 15일, 인천시 공원녹지 정책방향 및 핵심전략 보고회 개최 -
- 한남정맥, 갯벌, 해안 등 활용한 3대 핵심사업, 6개 실천사업 제시 -

인천광역시는 4월 15일 인천대공원 회의실에서 시, 군·구 공원녹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인천시 공원녹지 정책방향 및 핵심전략 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시가 인천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코로나와 기후위기의 시대, 인천시 공원녹지의 대안은 무엇인가?’하는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보고회다.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인천시의 공원녹지 정책방향과 핵심 실천 전략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강사로 나선 권전오 선임연구위원(인천연구원)은 공원녹지분야의 3가지 정책방향과 6가지 실천사업을 주문했다.

3대 핵심사업으로 ▲시민중심의 서비스 강화 ▲자연보전과 도시녹화의 방향(지구온도 상승 1.5℃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사업으

로 발전) ▲부서간 업무연계성 강화 및 조직 정비를 통한 변화된 업무 환경에 능동적 대응을 제시했다.

6가지 실천사업으로는 ▲한남정맥 그랜드 S파크 ▲6대 대공원체계 → 15대 대공원 체계로 확대 ▲수도권매립지의 국가정원 추진 및 정원박람회 개최 ▲공영 노외주차장 공원화 ▲마니산, 갯벌 연계 국립공원 지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인천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자 보물인, 한남정맥과 갯벌, 해안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녹색복지를 제공할 것”이며 “특히, 원도심 공원녹지는 신도시에 비해 부족한 만큼, 공원녹지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